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유채, 1610-1614년경, 126×98.5cm, 산지네 성당, 마드리드, 스페인

성화해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엮으시고 한쪽 손에 채찍을 들고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시고 있다. 이와 달리 오른쪽에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왼쪽의 큰 동상 아래에는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부조 형태로 그려져 있다). 예수님께서 이 정화행위를 통하여 하느님의 성전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본래의 거룩한 모습을 되찾아 주셨다.

입당송 시편 25(24),15-16

제1독서 탈출 20,1-17 <또는 20,1-3.7-8,12-17>

화답송 시편 19(18),8.9.10.11(◎요한 6,68ㄷ)

◎ **주님,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은 이를 즐기롭게 하도다. ◎
-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밝아서 눈에 빛을 주도다. ◎
-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도다. ◎
-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도다. ◎

제2독서 1코린 1,22-25

복음환호송 요한 3,16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복음 요한 2,13-25

영성체송 요한 4,13-14 참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만나려는 하느님과 만나야 할 하느님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요 구심점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날마다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봉헌했으며 공동으로 기도를 바치곤 했습니다(사도 3,1 참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대 축제인 파스카 축제, 오순절 축제, 초막 축제를 거행하며 한 해를 지냈는데 그때 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행해 왔던 그 축제들은 한결같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가 거행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소중한 장소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받은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전 의식을 준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성전 의식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단호하게 단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예고하시며 성전이 더 이상 장사꾼들의 상거래 장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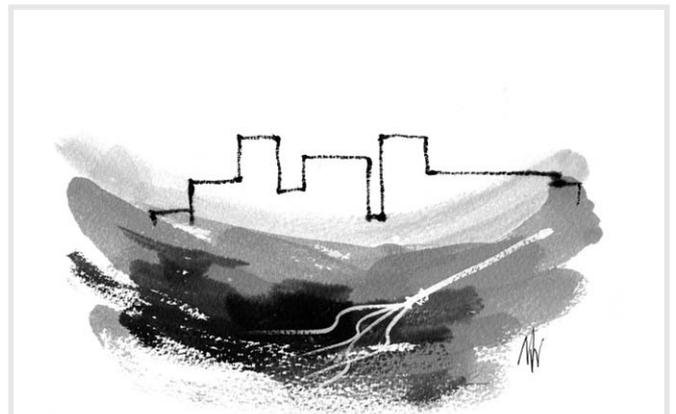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난날 스승께서 보여주신 성전에서의 행위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경신례가 거행될 바로 그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받은 장소인 성전이 상업주의에 물든 인간들에 의해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나이 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하느님이셨다면, 신약 백성의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온몸으로 전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현존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당신의 몸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경고 말씀과 계시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구가 빚어낸 신을 섬기고픈 인간적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만 합니다. 동시에 나약한 본성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온 우리의 왜곡된 삶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형식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야 할 하느님이 만나고픈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요한 2,16).

유리의 성



안미경 데레사 |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연구원

아는 선배 언니가 이혼을 했다. 슬하에 자녀가 없어도 잉꼬부부로 소문난 터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7살 짜리 아들이 나타난 것이다. 언니는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 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내가 옆에서 봐도 한평생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온 언니다. 늘 맛깔스런 반찬과 깨끗하고 아늑한 집, 퇴근한 남편을 위해 따뜻한 물로 발까지 씻어주던 언니가 아니던가. 언니의 남편 역시 성실해서 늦으면 늦는다고 꼭 전화하며 애정을 과시하곤 했다. 오죽하면 ‘보증수표’란 별명을 얻었겠는가. 그런데 뜻밖의 소식은 언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하는 편이었다. 늘 보살피고 주고 배려하는 따뜻한 성격으로 만인의 칭송을 받았다. 언니 말로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늘 동생들을 보살피고 엄마의 일을 도우며 할머니 이부자리까지 알아서 챙겼다는 것이다.

성격은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며 알게 모르게 각인된 삶의 방식이다. 말하자면 선배 언니는 50여년을 늘 헌신하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뒤집으면 내가 한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역할에 매달리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잘하니 너는 당연히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해!’ 하는 유리의 성을 쌓게 되기 십상이다. 이런 유리의 성에는 진정한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자존감이 없기에 의무, 책임,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애쓰며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비난하고 경멸하게 된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사이파처럼 말이다.

언니가 바리사이파처럼 살았다는 말이 아니다. 늘 남을 위해 살아온 만큼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해야 한다’는 말은 하시지 않았다. 그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하길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한 내 마음을 읽고 그것을 솔직히 표현할 때 탄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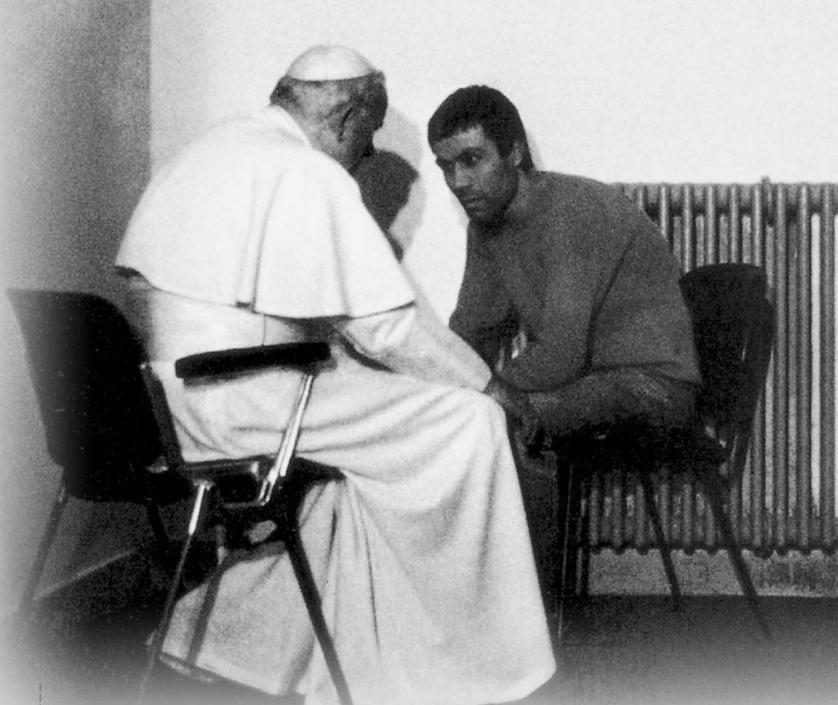
나 역시 50줄을 넘어가면서 내가 세운 유리의 성이 여기 저기 부서지는 것을 본다. 그럴 때마다 두렵고 아프다. 하지만 그 성을 부수기만 하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운 성을 부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나의 보잘 것 없음을 기초로 탄탄한 성전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청해봐야겠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1

인간의 생명권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가톨릭 교리서 2270항>.

인간 생명은 잉태(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권리가 주어져며,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의 권리입니다. 생명은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권리는 타인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하는 천부적인 권리에 인종, 성, 종교 등에 따라 이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 생명권은 노인, 어린, 유아 등 생명의 단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죽음이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인간의 생명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인공유산반대선언문 11-12항 참조).



서울대교구

상설고해소 안내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에서는 “각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중략) ... 각 지구별로 한 곳씩 상설고해소를 설치하여 신자들이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성직자 20)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3개 지역구(중서울, 동서울, 서서울)에 신자들이 오고가기 쉽고 잘 알려진 본당을 빌려 상설고해소를 시작하였고 이제 약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상설고해소를 찾는 신자 분들은 대개 오랜 휴식을 풀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에 대한 상담식의 고해성사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 충고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직장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본당에서 성사를 보기가 어려운 분들 등입니다. 더욱이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성직자 분들도 찾아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상설고해소를 찾는 분들 중에는 그간에 묵은 고민 거리를 풀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 ‘상담식의 고해성사’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속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전문분야의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해성사가 비록 ‘상담식’ 이 된다 해도, 주된 내용은 상담 자체가 아니라 ‘죄의 고백’ 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법 앞에서 어그러진 양심을 회복하고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데, 그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

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결심은 하지만 또 다시 죄를 반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유효한 것이 ‘상담식’ 의 고해성사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신상담을 겸한 고해성사”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분야의 상담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영신상담을 겸한 것이다 보니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상설고해소는 그러한 고해성사를 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온전한 고해성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성찰과 통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정개), 그리고 알아낸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하고, 고해사제로부터 받은 보속을 모두 해냄으로써 완성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고해성사가 되지 못합니다.

양심의 회복은 은총의 회복이요 참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저 받는, 신자만의 특권이자 구원의 통로인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상설고해소 시간과 장소

요일	때	곳
월요일	오후 2시~5시	봉천동성당
화요일	오후 7시~9시	혜화동성당
수요일	오후 2시~5시	오금동성당
목요일	오후 2시~5시	목5동성당
금요일	오후 2시~5시	역삼동성당
토요일	낮 12시~오후 2시	절두산성당

소식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1. '청년 교리서' 제3권(시안) 심의, '주교들과 수도회의 공동 위원회' 추진에 관한 논의, 제50차 세계성체대회 한국 대표 선출 등 주교회의의 2009 춘계 정기총회에서 다룰 안건 목록을 확정
2.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총무로 김철호(바오로) 신부를 임명

2009 주교회의의 춘계 정기총회

주교회의의 춘계 정기총회가 3월16일(월)~20일(금), 중곡동 주교회의의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 단편영화 제작지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 산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3월2일, 명동에서 '생명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영화 제작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리에 입각한 생명 존중과 용서의 정신을 사회에 전파하고, 생명 존중의 정신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조순창 신부 사제수품 50주년 기념미사

- 때: 3월19일(목) 오전 11시
- 곳: 명동성당 / 문의: 011-235-2513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3월17일 백은기 라파엘 신부(66세) 2005년, 용인
- 3월21일 김창수 마르티노 신부(48세) 2004년, 용인

3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건강한 가족 공동체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3월16일(월)	불광동성당(지구자체)	
3월17일(화)	신내동성당	명일동성당
3월18일(수)	중곡동성당	역삼동성당
3월19일(목)	대방동성당	등촌1동성당
3월20일(금)	목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역삼동성당 기술직(경력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전기기사 2급(산업기사), 소방설비 2급 자격증 소지자(면접은 개별통보)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제출서류 반환 안 됨) / 문의: 553-0801

서울대교구 방이동성당 사무장, 사무원 모집

- 대상: 사무장(남) 50세 이하, 사무원(여) 30세 이하로 컴퓨터 조작 및 회계 업무 가능한 교우 / 문의: 412-2064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3월24일(화) 까지 우편 접수(면접은 개별 통보, 제출서류는 반환 안 됨)

교구청 알림

원목봉사자교육 제II과정

- 내용: 한자돌봄을 위한 심화교육(회비:9만 원)
- 때, 곳: 4월1일-22일 매주(수) 10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3월25일(수)까지 접수
- 문의: 727-2073, 2050 일반병원사목부

사목국 일반교육부(문의: 727-2062, 3)

구역장 · 반장학교 3단계(6기)

- 대상: 구역장 · 반장학교 1 · 2단계를 수료한 남녀 구역장 · 반장 / 3월18일까지 접수
- 때, 곳: 3월25일(수)-26일(목) 13시-17시 · 3월27일(금) 13시-15시, 혜화동성당 / 회비: 2만 원
- 분당 수도자 연수**
- 대상: 각 분당 수도자 / 3월16일까지 접수
- 때, 곳: 3월22일(월)-23일(화) 1박2일,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 회비: 1만 원

경찰서 유치장 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세례 · 견진 받은 60세 이하 교우,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www.catholicpolice.or.kr)
- 문의: 723-9471 경찰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

- 금요특강: 영성상담봉사자 3급 자격증 교육
- 대상: 영성상담봉사자 자격증 소지자 우선, 고졸이상 만 20세 이상 교우 약간명(정원 90명)
- 주제: 가톨릭교의, 상담심리, 성격심리, 발달심리, 대상관계이론(3월18일까지 선착순 접수)
- 회비: 1학기 16만원(접수 후 입금바람)
- 때: 3월27일-6월12일(1학기) · 9월11일-11월20일(2학기) 오후 2시-6시 / 1년 과정, 20주
-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 727-2126, 7

3월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기원미사

- 때, 곳: 3월17일(화) 오전 11시,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집전: 변종승 신부(새남터성당)
- 문의: 2269-0413 순교자 현양회

가톨릭 유아교육 담당교사들을 위한 생태월례강좌1

- 주제: 유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불현
- 대상: 가톨릭 유치원 · 어린이집 유아교육 담당교사 및 관심자 50여 명 / 회비: 1만 원
- 때, 곳: 3월21일(토) 10시-12시, 명동성당 교육관 303호 / 강사: 맹주형 교육부장
- 문의: 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왕 선교 수녀회	3. 22. 14시	수녀회성복동한국본부	011-9386-3241
돈보스코 여자재속회(VDB)	3. 22. 10시-17시	살레시오3층(신길동)	011-797-3115
마리아의 종 수녀회	3. 22. 14시-16시	돈암동 분원	010-3065-8221
아씨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3. 21-22.	기천리 수련소	010-5313-0241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3. 22. 14시	다락 공부방(서울)	011-9731-0283
성심 수녀회	3. 22. 10시-17시	원효로 청원소(마사있음)	010-9562-3339
사랑의 씨앗 수녀회	3. 20. 19시30분	씨앗 피정의 집	011-9193-3005
성모 영보 수녀회	3. 22. 14시	과천 본원	010-8920-9423

알림

모임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

· 미사: 박성구 신부(치유: 이명환, 이상기)
·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016-309-0048

삼성산 성지 성모송 2천번 기도회

· 지도: 송광섭 신부(부담과 미사) / 874-6346
· 때: 3월16일(월), 23일(월) 오전 9시30분-17시
· 곳: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수도자와 함께 하는 순례의 길

· 때: 5월1일(금)-11일(월) / 이태리, 성모님 성지순례
· 문의: 010-7131-3097 권루치아 수녀(주최: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영성연구소)

젊은이 침묵피정

· 대상: 청년 신앙인(선착순 마감) / 회비: 1만5천원
· 때, 곳: 3월22일(일) 9시30분-17시, 마리아의 딸 수도회(주최) / 문의: 2648-7134, 010-686-7134

하느님을 갈망하는 젊은이를 위한 피앗모임

· 때: 3월22일(일) / cafe.daum.net/fiatmeeting
· 곳: 정릉 수녀원 / 010-5247-8913, 010-3825-4999
· 주최: 일죄없으신 마리아 수녀회, 글라렛 선교수도회

젊은이 길 찾기 피정

· 대상: 성소의 길을 찾는 남녀 젊은이 / 22일까지 신청
· 때, 곳: 3월28일(토)-29일(일), 논산 씨든 영성의 집
· 문의: 011-9193-3005 사랑의 씨든 수녀회(주최)

청년들을 위한 가르멜 수도회 수도생활 체험 피정

· 대상: 고3 이상-만 33세 이하의 미혼 남녀
· 때, 곳: 3월25일(수)-27일(금), 마산 진동 가르멜 수도원(주최) / 010-3169-7416, 011-838-7408

마음을 가볍게 하는 피정(치유피정, 희망기도)

· 때: 3월21일-22일, 3월28일-29일 (토) 14시-21시 30분, (일) 14시-17시30분 / 442-8511(선착순 마감)
· 곳: 암사동성당(주최) / 지도: 최봉도 신부(대구대교구)

예수회 서울 피정

· 주제: 벗어나라, 벗어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심 / 강사: 이근상 신부(예수회 성소 담당)
· 때, 곳: 3월18일(수) 13시30분-17시, 서강대 이우니오관 성당(개인 컵 지참) / 718-3896, 7

치유 일일 피정

· 대상: 찬양과 영가(웃음치료) / 모든 교우 초대
· 강사: 김 메릴다 수녀(성가소비녀회) / 018-330-3283
· 미사: 박성구 신부 / 찬양: 예수시랑음악원(주최)
· 때, 곳: 3월25일(수) 13시-18시, 능동 작은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성실교육관 사순절 2박3일 무료피정

· 주제: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3,17)
· 때: 3월20일(금) 18시30분-22일(일) 15시
· 곳: 성실교육관(성실기도원) / 031)262-7600

천호동성당 일일 대피정

· 때, 곳: 3월23일(월) 9시-16시30분, 천호동성당 대성당(주최: 천호동성당 성령기도회) / 중식제공
· 문의: 010-9727-2830, 010-3797-8465(회비: 3천원)

오전 김완식 선교사 | 오후 한성호 신부(미사 및 안수)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문의: 773-1455)

Table with 2 columns: 피정, 내용. Rows include 제주 피정, 삼위일체 피정.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1416, 7)

Table with 2 columns: 열린 기도모임, 월요일, 성모송 2000번. Rows include 열린 기도모임, 월요일, 성모송 2000번.

젊은이 토요 L,D 피정

· 때, 곳: 3월28일(토) 14시-22시, 한강진 수녀원(서울)
· 문의: 010-4529-3429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교육

청년성서 강좌

· 주제: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25,21) / 주최: 13-A지구 청년연합회
· 때, 곳: 3월19일 매주(목) 12주, 삼성산성당 3층
· 회비: 2만원 / 011-9836-9369, 010-5344-3100

예수살이 공동체 11기 제자교육

· 소비사회에서 예수 제자 되기, 기도와 성사생활 뜰지기, 그리스도론, 좌선명상 등(회비: 12만원)
· 대상: 35세 이상 교우 / www.jsari.com 참조
· 때, 곳: 여섯 4월23일(목)-26일(일) / 남성 6월 11일(목)-14일(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
· 문의: 3144-2144, 2442(팩스: 334-2144)

수화(지화) 통역 성서공부(참세기)

· 대상: 청각장애 교우, 수화 기초반 수료자 및 수강자
· 강사: 정봉현 / 회비: 1만원(교재비 포함)
· 때, 곳: 4월5일부터 매주(일) 11시 미사후 12시30분-14시, 낙성대성당(주최) 손끝사랑 2층 절두산방
· 문의: 017-287-1570(sonlove1004@cyworld.com)

교중미사 수화통역(지화병행): 매주(일) 11시

본당연계 가정간호 사목적 활동을 위한 세미나

· 대상: 본당 연계 가정간호 담당 수도자, 구역간부, 꾸리아 간부, 의료 선교관련 신자 / 2258-2945
· 내용: 재가치매 노인을 돌보는 여성이 알아야 할 16가지(오시는 분 모두에게 차매선별검사해 드림) / 참석여부: 3월20일까지 가정센터로 연락
· 때, 곳: 4월1일(수) 10시-14시,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임상강의실 / 주최: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

Table with 2 columns: 1차, 2차. Rows include 3월20일(금) 오후 8시, 3월27일(금) 오후 8시.

한국 가톨릭 여성 연구원 열린강좌 및 워크숍

· 곳: 정동 풀사랑 / 문의: 2164-4804, 016-9282-6719
· 중년기 감정 찾기 강좌: 3월21일(토) 14시30분 / 강사: 박은미 교수
· 청년기 창조적 리더십 양성 워크숍: 3월27일(일) 15시 / 강사: 김주희(8주)

아키나스 교리음악역주 강좌(문의: 715-3793)

Table with 2 columns: 성가반주를 위한 오르간 개인 레슨, 합창지휘법. Rows include 성가반주를 위한 오르간 개인 레슨, 합창지휘법.

예비신자 우편 및 사이버 통신교리(문의: 2274-1843, 4)

· 대상: 18세 이상,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반에 할 수 없는 분(주최: 가톨릭 교리통신 교육회)
· 주소: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우: 100-652)

Table with 2 columns: 우편 통신교리, 사이버 통신교리. Rows include 우편 통신교리, 사이버 통신교리.

기쁨과 희망 사목 연구원 2009년 봄 상반기 성경강좌

· 곳: 기쁨과 희망 사목 연구원(주최) 강의실
· 문의: 3672-0253 / 2월28일까지 접수(전화접수 가능)

Table with 2 columns: 성서강좌, 신학강좌, 사회교리강좌. Rows include 성서강좌, 신학강좌, 사회교리강좌.

제 21기 목요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 때, 곳: 3월19일부터 매주(목) 19시40분-21시30분(총 32강좌), 서강대 K관 301호 / 705-8163 CLC 사무처

Table with 2 columns: 3월19일-5월7일, 5월14일-21일, 5월28일-7월9일, 8월12일-9월17일, 9월24일-11월12일, 11월19일-29일. Rows include 3월19일-5월7일, 5월14일-21일, 5월28일-7월9일, 8월12일-9월17일, 9월24일-11월12일, 11월19일-29일.

“은빛 아이 지킴이” 할머니 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 대상: 서울거주 50세-65세 여성노인 / 765-8458
· 내용: 할머니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일자리 연결)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진행사업
· 교육기간: 1기 4월13일-6월23일 매주(화·목), 2기 7월7일-9월10일 매주(화·목) / 3월16일(월)-4월10일(금)까지 접수 / 주최: 서울시니어아카데미
· 교육장소: 서울대교구 시니어센터(종로성당 내)
· 전·진·상·영성사목센터
· 문의: 726-0710(www.jjscen.or.kr)

Table with 2 columns: 미음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월례강좌, 참가지 찾기 훈련, 감수성 훈련, 종합심리검사. Rows include 미음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월례강좌, 참가지 찾기 훈련, 감수성 훈련, 종합심리검사.

모집

서울가톨릭사목복지회 “서로함께” 입소자 모집

· 대상: 18세 이상 / 지적장애인(정신지체)
· 문의: 852-0400(관악구 신사동 505-8번지 401호)

서울가톨릭간병인회 남·여 간병인 양성교육 및 모집

· 때, 곳: 3월24일(화)-26일(목) 9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508호 / 928-7185(선착순 15명, 환불 안됨)
· 회비: 7만원 / 우린은행 1005-701-131505(계)천주교

미사

신당복지관 개관 14주년 기념미사

· 때, 곳: 3월16일(월) 오후 2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주최)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3월20일(금) 11시30분,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때, 곳: 3월19일(목)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와 친교
· 문의: 753-8765 새천년 복음화사도회

마미엘장애인 가족 봄 미사

· 대상: 마미엘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후원자·교우, 기타 희망자 / 722-6793, 010-3115-6327
· 때, 곳: 3월24일(화) 오후 2시, 대방동성당

곤벤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 내용: 미사, 영성강좌 / 주제: “상처와 치유”
· 강사: 박영호 신부 / 793-2070, 011-749-1670
· 때: 매일 셋째주(월) 오전 10시30분-12시50분
·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원 기도회와 미사

· 내용: 구원기도 및 강의, 미사(전후에 고해성사)
· 때, 곳: 3월16일(일) 오후2시, 수유1동성당
· 구속주회 본원: 매주(토) 오전 11시
· 문의: 598-1312, 010-4189-5755 신부 구속주회

안내

해성보육원(국내입양 전문기관)

·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운영)
· 문의: 032)874-3240, 875-3240(www.hschild.or.kr)

성령 선교 수녀회 피정 안내

· 각종 세미나 및 모임, 소그룹 피정, 여성들을 위한 개인 피정기능 / 문의: 741-4895 명륜동 본원

여성연합회 자선바자회

· 때, 곳: 3월21일(토)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직원식당 · 사랑마트 / 문의: 778-7543

니눔의 전화전화-면접 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 정신건강, 위기상담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
· 매주(월-토) 10시-21시30분(일·공휴일 휴무)
· 상담 전화: 752-4411, 4413(면접 예약: 727-2250)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서울대학교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묵상과 기도, 성경이 어우러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기

The word among us 저음 | 가톨릭출판사 옮김
128×188 | 96면(한글판) · 84면(영문판) | 각 권 900원

잠시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벅찬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지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입니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발행되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월간지 <The Word Among Us>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는 **말씀지기**에는 매달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인물을 골라 심도 있는 해설을 덧붙이는 '영성 에세이', 가톨릭 성인이나 독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소개하는 '내 안의 말씀', 매일의 전례에 따라 깊이 있는 묵상 글을 싣고 있는 '30일 묵상', 사제들의 자아 성찰과 단상이 솔직 담백하게 담겨 있는 '아침 뜨락' 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 **김수환 추기경**,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분의 체취가 담긴 책!



직접 쓰신 수필과 메모, 기도와 시, 여러 강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한데 모은 이 책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수환 추기경의 어려운 사회 현실에 대한 고뇌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 줍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신앙과 사랑 1·2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음 | 154×210 | 각 권 10,000원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사신 故 김수환 추기경의 묵상이 담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에 장의 주교가 14처에 맞는 성경 구절을 넣어 십자가의 길을 더 풍부하게 바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십자가의길

김수환 묵상 | 장의 역음 | 110×170 | 80면 | 2,500원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2-360-9139, 9172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문용희 & 이대욱 듀오 피아노 리사이틀

- 입장권: 일반 3만 원, 학생 2만 원
- 문의: 706-1481, 2(www.musicphil.co.kr)



문용희 & 이대욱 듀오 피아노 리사이틀이 3월19일(목) 오후 8시, 명동성당에서 있다. 섬세하고 열정적인 피아니스트 문용희와 온화한 톤과 포용력을 갖춘 피아니스트 이대욱이 절묘한 앙상블을 이루어 슈만의 '페달 피아노를 위한 캐논 형식의 6개의 연습곡' 과 메시앙의 '아벤의 환영' 전곡을 들려준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
(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 4인까지 할인가능).

연극 '오랜 친구 이야기'

- 입장권: 일반 3만 원, 학생 2만 원 / 예약 및 문의: 762-0010
- 공연시간: 화~ 금 20시 / 토·공휴일 16시·19시30분 / 일 16시



50대들의 삶과 사랑이야기를 담은 연극 '오랜 친구 이야기'가 3월18일(수)~5월17일(일),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2관에서 공연한다. 명퇴, 자녀의 결혼 등 자신의 영역에서 물러난 50대들의 모습에서 부모의 이야기를, 나의 미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평일 30%, 주말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 3인까지 할인가능).